

<서평>

『보이지 않는 세계: 성경의 초자연적 세계관 회복하기』

마이클 하이저 저, 손현선 역, 서울: 좋은씨앗, 2019

김대웅*

마이클 하이저의 2015년 저서가 최근 국내에 한글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하이저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M.A.)와 위스콘신 대학교(M.A., Ph.D.)에서 수학했고,¹⁾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로고스 성경 소프트웨어 전문 연구원으로 봉직하고 있다. 하이저의 2015년 저서 *The Unseen Realm*은 그가 2004년에 마이클 폭스 교수의 지도를 받아 완성했던 박사 논문, “후기 정경 및 제2성전기 비 정경 유대 문학에서 천상의회”(The Divine Council in Late Canonical and Non-canonical Second Temple Jewish Literature)를 발전시킨 결과물이다. 하이저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른바 ‘천상의회’ 장면들에 주석적 관심을 집중한다. 그가 선택한 주요 장면들은 욥기 1장, 열왕기상 19장, 다니엘 10장, 스가랴 3장, 신명기 32장, 시 82편 속에 들어 있다. 하이저의 연구는 구약성경의 천상의회 주제를 큰 그림으로 보여주려는 성경 신학적 시도다. 이를 위해 그는 정경과 비정경에 흩어진 모자이크 조각들을 두루 찾아내어 재구성 작업을 진행한다. 이 주제 자체는 이미 오래된 것이다.²⁾ 그러나 천상의회가 이스라엘의 유일신론적 세계관에 따른 여호와와의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구약학

1) 하이저는 그의 저서에서 그가 고교 시절 신앙을 갖게 된 이후 성경대학에 진학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학교는 소개하지 않는다(p. 25).

시종들로서 천사 집단이 아니며 여호와와 다른 여러 신들을 인정했던 고대 이스라엘의 만신전 사상을 반영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성경을 신적 계시로 보는 진영 안에서는) 특이하다. 하이저는 15년에 걸친 그의 연구가 정당한 것은, 번역본들의 한계와 신학적 전통의 굴레를 벗어나 성경에서 주변적인 요소들로 취급 받아온 세부 사항들을 이스라엘과 1세기 성경저자들의 환경에서 있는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제시한다(pp. 15, 29). 오늘날 절대 다수의 입장과 상반되게도, 고대 이스라엘의 경전은 다양한 신들로 구성된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의 현존 및 그 세계와 인간 사회의 은밀한 교류를 증언한다는 것이다. 하이저는 그 신들이 여호와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들이고 그 신들의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하지만(p. 49). 그의 주장의 역점은 그 신들이 인간 세계와 구체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데에 있다(p. 50). 하이저는 “성경 기자들은 다신론자들이 아니었다”고 하면서도(p. 42), 여호와가 그 신들을 주재하는 모임은 마치 “다신론과 그리스 신화에나 나올 법한 만신전과 같지” 않느냐고 묻는다(p. 42). 과연 구약성경의 천상의회는 고대 중동의 신화적 만신전과 비슷할까?

하이저는 시편 82편 1절 하반절 “בְּקִרְבֵּי אֱלֹהִים שֹׁפֵט”에서 “אֱלֹהִים”은 ‘신들’을 가리키기 때문에,³⁾ 이 시편은 여호화를 “만신전의 일원”으로 제시한다고 주장한다(p. 15). 시 82편은 여호와가 “신들이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일에 부패했다”고 고발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p. 15). 하이저에게 1절 하반절의 “אֱלֹהִים”은 6절에서 “지존자의 아들들”이며 결코 인간이 아니다(p. 43). 그들은 본래 여호와와 지시로 세상을 공평하게 통치할 임무를 맡은 신들이었으나 타락하여 부정한 통치를 일삼았고, 그래서 인간처럼 죽게 된

2) 관련 연구 현황과 자료는 본서 39페이지 각주 4번, 그리고 하이저의 2004년 박사 학위 논문에서 “Chapter One: Introduction to the Study”를 참조하라. 그는 여러 고고학적 발굴물을 거론하며 이스라엘의 유일신관은 단일신관을 거친 발전적 모델이라는 견해를 피력한다(p. 5).

3) 몇몇 영어 번역은 그렇게 한다. “in the midst of the gods he holds judgment” (ESV, RSV). 개역개정은 이 단어를 ‘그들’로 옮겼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니라.”

자들이다. 하이저는 바울과 예수님도 이 구절을 읽었을 것이라고 한다(p. 17).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신들로 부르셨다”는 말씀 하셨고, 하이저에 따르면, 학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나 훗날 구약성경이 된 계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이저는 학자들의 그런 주장을 오해라고 비판한다. 하이저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으로써 그가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주장하셨고, 요 10:34에서 시 82:6을 “인간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한다는 뜻으로 인용하여 그의 주장을 변호하셨다고 제안한다.⁴⁾ 그러나 하이저의 비판과 달리, 시편 82편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신들”로 부르신 존재들은 그런 의미의 율법이나 계시를 받은 자들로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역할은 재판이다. 그들은 “가난한 자”와 “고아,”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를 공평하게 재판하여 “악인들”에게서 “건지라”는 명령의 말씀을 받는다(2-4절). 의심의 여지 없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재판의 기준은 시내산 언약과 함께 여호와가 주신 율법이며(출 18:26, 23:3, 레 19:15, 35, 신 1:17, 16:19, 24:17). 그 율법 집행의 주체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신 1:16, 16:18, 25:1),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불리는 직책을 맡은 인간들이다(출 18:21-22, 신 1:15). 여호와의 율법에 일치하는 통치 행위로서 인간에게 재판을 담당했던 자들을 그런 직분자들이 아니라, 하이저의 확신처럼, 여호와의 천상의회회 신들로 규정할 수 있을까?⁵⁾

4) 하이저는 이 견해를 그의 책 p. 443, 각주 3에서도 요약 제시하지만, 상세한 내용은 그의 온라인 블로그에서만 구체적으로 밝힌다: <https://faithlife.com/posts/776815>.

5) 하이저는 그가 시 82편에서 발견한 신들의 존재는 창세기 3:5에서 “너희가 눈이 밝아 ‘신들(אֱלֹהִים)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는 뱀의 말에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한다(p. 103). 그러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창 3:22), 뱀이 말한 “אֱלֹהִים”은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 하나”라고 하신 자신을 가리키지 않는가(창 3:22)? 하이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중 하나”를 (창 1:26에서 “우리”가 가리키듯이) “천상의회 기구에 속한 일원들”이라고 단정한다(p. 103). 같은 맥락에서, 하이저는 시 8:5에서 사람이 “אֱלֹהִים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다는 진술에서 “엘로힘”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천상의회 회원들을 가리키고(p. 104), 이 시편의 칠십인경 번역을 인용한

하이저는 시 82편의 신들이 여호와와 지시를 받아 “열국을 다스리는 일에 부패”하게 된 신들이라고 주장한다(p. 192; 비슷하게, p. 267). 그러면서 6절을 인용한다. 하지만 왜 6절이 그의 주장의 근거인지는 즉각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는 나중에 이 신들을 가리켜 바벨탑 건축 사건 이후 땅에 흩어진 열국을 양도 받은 신들인데(pp. 187-8), 이들이 시82편에서 여호와와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열국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미혹했기 때문이고(p. 433),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여 참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섬기게 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p. 564, 각주 9, 비슷하게 p. 54, 각주 11). 하이저는 하나님이 바벨에서 흩으신 민족들에게 신들을 배치하여 공정하게 다스리게 하셨다는 자기의 주장을 신명기 32:8-9와 연관시킨다. 여호와와 홍수 이후 이스라엘을 그의 분깃으로, 나머지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효대로” 정하셨다는 것이다(p. 189).⁶⁾ 관련하여 신명기 4:19-20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주재 곧 …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언급하는데, 하이저는 신명기 4장과 32장이 동일한 신적 통치자들을 가리킨다고 본다(p. 191).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던 이유는, 신들의 통치를 받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다(행 17:26-27).

그러나 하이저의 일관된 주장과 달리, 비록 여호와가 열국을 신적 존재들에게 분정하여 다스리게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호와와 다른 신들의 긴장 관계나 대립 관계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호와가 언약 백성을 형벌하시기 위해서 앗수르나 바벨론처럼 “다른 신들의 휘하에 있는 외국군대를 소환하셨다”(p. 593). 바벨 사건 이후 하나님은 열국을 다스리게 하신 신들로부터 열국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기로 하셨고, 그 결정 때문에 “지구

히브리서 저자 역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렇게 이해했다고 주장한다(p. 105). 그러나 시 8:5의 “엘로힘”은 왜 하나님을 결코 가리킬 수 없는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을 통치하도록 창조된 사람은 그 통치권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고 할 만큼 위대한 역할을 맡은 피조물 아닌가!

6) 하이저는 이 구절을 MT가 아니라 LXX과 사해사본에 근거하여 제시한다.

에 우주적 영토 싸움의 전선이 형성”되었고, 자기들의 기업을 여호와께 순순히 반납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여호와가 가서 탈환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다(pp. 205-6). 이것은 바벨 사건 이후 신들이 여호와와의 주권을 거슬러 반역을 시작했음을 뜻하는데, 하이저는 이러한 반역은 창세기 6장이 묘사하는 홍수 이전에 이미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비슷하게, 그는 다니엘 10장의 바사의 군과 헬라의 군을 그가 일관되게 주장한 천상의회에서 여호와께 반역한 신들로 규정한다(pp. 201, 547).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신적 존재들로 암시되는 것들이 여호와께 저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오직 여호와가 그의 고유한 구속사적 목적을 성취하시려는 절대적 주권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일견 그들의 저항과 공격처럼 보이는 행위들은 여호와가 정하신 절대적 결정을 이루는 데에 사실상 협력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일부로 평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저의 주장처럼, 그 신적 존재들이 “여호와와의 종이 아닌 신적 라이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p. 208). 구약 성경의 천상의회에서 여호와와 그 회원들의 관계는 고대 중동의 만신전의 신들이 벌이는 갈등이나 충돌의 관계와 전혀 비슷하지 않다. 하이저가 구약의 역사를 가리켜 “원래의 에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여호와와 신들, 여호와와 자녀들과 열국 간의 긴 전쟁을 기록한 책”이라고 규정하듯이(p. 618),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비롯한 영적 지도나 지역 귀신들(territorial spirits)의 존재와 위협을 지적하는 개인이나 집단도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과 경쟁하거나 대립하거나 심지어 전쟁하는 독립적인 개체들인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하이저가 그들과 완전히 똑같은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부르며 그 실체를 알면 영적 세계관의 대변동이 온다고 하는 주장들은 어쩐지 그들처럼 영적 세계의 긴장과 충돌을 여호와와 그를 향한 위협적인 악한 세력의 치열한 전쟁으로 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관련하여 내가 하이저의 논증 중에서 견해를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질적인 부분들을 추가함으로써 이 글을 마무리하고 싶다. 하이저는 이사야 14장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이사야가 “에스겔 28장의 언어를 빌려온” 것이라고 주장한다(p. 140). 하이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더 하지 않기에, 이사야 14장의 이사야를 에스겔 선지자보다 후대의 예언자로 취급한다고 추정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다. 하지만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를 하이저는 짧게라도 설명해야 하지 않았을까? 비슷하게, 하이저는 창세기 1-11장에서 바벨론을 비롯한 고대 민족들의 사상에 대한 신학적 비평의 논조가 감지되는 이유는, 이 장들이 포로기에 쓰였거나 그 기간에 편집되었기 때문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한다(p. 180). 하이저가 신들의 반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창세기 11장의 바벨 기사에서 탐은,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마르둑 예배와 관련된 지구라트를 가리키는데(p. 192), 그의 이 견해 역시 창세기를 비롯한 오경 기사에 대한 포로후기 유래설에 대한 그의 신뢰감을 나타낸다(p. 192). 나는 하이저가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법한 질문들을 간과하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는 창세기가 포로기에 완성되었다고 반드시 단정해야 하는가?

비슷하게,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물론이고,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다니엘 7:13의 “인자 같은 이”를 하이저가 부르듯이 성육신 하신 “둘째 여호와(second Yahweh)”의 위상을 지닌 존재로 보지 않는다(pp. 423, 425, 451, 487, 514, 526, 577). 여기서 “둘째”라는 말은 흔히 고대 유대교에서 다니엘 7장의 인자 같은 이를 하늘의 유일신 여호와보다는 그 존재적 위상이 더 낮은(lesser) 신성한 존재로서 여겼던 분위기를 연상시킨다. 하이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구약의 “둘째 여호와”로 부르는 것은, 그가 예수를 유대교적 개념의 열등한 여호와로 보기 때문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예수께 고대 유대교의 반기독교적 용어를 연상시키는 용어 사용은 분명히 부적절하다. 다니엘 7장에서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세우실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신적 군왕으로 예언되었으며, 이후 자신을 인자로 가리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셨고 창자 완성하실 것이며, 다니엘 7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로 설명된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신약 교회론적 전망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이저의 저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천상의회 주제를 구신약을 일관하는 성경 신학으로 부각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많은 결론들은 지금까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텍스트 자체의 모호함이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며 상당히 신중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들이다. 내가 보기에 그 신중함은 용기가 없거나 무지함이라기 보다는, 성경 텍스트에 대하여 연구자가 갖출 바람직한 겸비함이라 불러도 좋은 것이다. 하이저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규정하며 보여준 연구의 대담함은 아쉽게도 그런 신중함의 한계를 자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나는 이 서평이 하이저가 다루는 성경 텍스트에 관련된 복잡한 학문적 논의의 역사와 범위를 알기 어려운 독자들에게 부분적이거나 비판적인 안목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